

이 여름에 읽을 만한 책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20인의 추천

올 여름의 독서街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작금의 사회변화 추세에 걸맞게 다양한 출판목적이 선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무덤과 지루한 여름에 읽을 만한 책은 어떤 것일까.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본지 편집서평위원들이 추천하는 '권하고 싶은 책'을 모아보았다.

◇중공에 다녀왔습니다 (이계향, 음성출판사)

재미 한국인 여류작가의 중공기행문. 북방외교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가운데 중공의 이해에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는 책. 기행문의 재미를 따라가며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

〈변호사 韓勝憲씨 추천〉

◇엄마 아빠 그건 싫어요 (어린이 교육연구회, 현암사)

◇선생님 선생님(*)

어린이 글쓰기의 바람직한 모범을 보인 책들. 이야기와 토론을 통해 '글짓기'가 아닌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유도, 어린이 이해하는 어린이상과는 다른 어린이 상의 진솔함이 잘 표현돼 있다.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 고정관념을 깨뜨려주며, 글쓰기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덕성여대 산업미술과 李元馥교수 추천〉

◇오늘의 소설 (홍희담 외, 현암사)

올 상반기에 발표된 소설 중 문제작으로 꼽히는 5편의 중편과 4편의 단편을 재수록한 책. 평소 문학에 소원했던 독자들도 요즘 우리 소설의 흐름을 일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젊은 평론가들의 권두좌담 '민중문학 주체논쟁'은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문학평론가 金炳翼씨, 아동문학가 曹大鉉씨 추천〉

◇풍속의 역사(폭스, 이기웅·박종만, 까치) 어디서 펼쳐봐도 좋고 어디서 덮어도 되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 性풍속의 사회경제사적 토대를 일관되게, 그리고 흥미롭게 파헤치고 있다.

〈문학평론가 金炳翼씨 추천〉

◇세계사산책 제1권(편집부, 집현전)

부제 '호모사피엔스의 새벽'. 짧은 편집자들의 신선한 감각으로 다시 씌어진 세계사 입문서. 평이한 서술과 명료한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교양으로서의 세계사 안내서.

〈아동문학가 曹大鉉씨 추천〉

◇종교와 예술(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 윤이흠, 열화당)

聖을 추구하는 종교와 美를 추구하는 예술간의 구조적 일치 및 현상적 상이함의 관계를 규명한 책. 회화, 건축, 신학적 미학의 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쉽게 읽히는 번역의 매끄러움이 초역의 아쉬움을 상쇄시켜 준다. 부제는 '聖과 美의 경계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서울대 종교학과 鄭鎭弘교수 추천〉

◇J. D. 버날 과학사 3·현대편 (J. D. 버날, 김성연 외, 한울)

전4권으로 구성된 J. D.버날의 「과학사」

중 세번째권. 과학이 어떻게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신념과 실천을 변화시켜 왔는가를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문제로 설명한 과학사의 고전. 특히 과학을 마르크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어 과학사에 관심이 있는 이에게 일독을 권한다.

◇노벨상의 발상 (미우라, 손영수, 전파과학사)

역대 노벨수상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수상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 뒤에 숨겨진 일면을 흥미롭게 엿볼 수 있다.

◇文明의 黎明(존 A. J.가우레트, 배기동, 범양사 출판부)

인류의 발생단계, 진화과정, 단계별 문화발전, 그런 내용을 연구하는 방법과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한 고고학 책. 역사 이전의 몇백만년 동안에 전개된 신비에 가득찬 인류의 고대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한림대 宋相庸교수 추천〉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존 스포트, 박영호, 기독교문서선교회)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교회들이 사회문제에 무관심한데 반해 이 책은 모험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의 제반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서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치안보관계, 경제관계, 사회문화관계 등 3권으로 구성되었다. 한미관계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읽어야 할 책. 학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한미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숙명여대 사학과 李萬烈교수 추천〉

◇북한여성(이태영, 실천문학사)

남북한 교류의 활발한 움직임을 볼 때 여성계의 남북교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해서 북한여성들의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劉載天교수 추천〉

◇長征(김준엽, 나남)

중국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사. 임시정부와 광복군 운동을 역사적 체험을 토대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 전반에 관한 것을 감동깊게 기술하고 있다.

◇서구사회사이론의 조류 (한국사회사연구회, 문학과지성사)

새로운 학문인 사회사의 이론과 방법이 서구사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소개한 책. 우리의 사회사 이론과 방법에 응용가능하도록 쉽게 풀이했다.

◇국역 과농소초(박지원, 아세아문화사)

18세기 말 우리나라의 대표적 실학자인 연암의 개혁사상-토지, 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을 쉽게 국역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愼鏞廈교수 추천〉

◇겨울 골짜기(金源一, 민음사)

분단 이전의 역사를 비교적 흥미있게 다룬 책. 제목의 '겨울'이 시원함을 더해 줄 것이다.

〈연세대 경제학과 尹錫範교수 추천〉

◇이집트 구르나마을 이야기 - 민중과 함께 하는 건축(하싼 화디, 정기용, 열화당)

이집트 건축가인 저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구르나마을에서 전통적인 건

*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서도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

화보 및 자필 삽화 삽입!! 값 2,500 원

스물 세 살부터 서른 한 살까지 생뚱쭈삐리가 쓴 우정의 편지...!



말없이 모래바람 속을 날으며 기꺼이 모험을 찾아나섰던 생뚱쭈삐리. 밤이면 밀려드는 고독과 죽음의 공포를 상상의 친구에게 호소하리만치 지독히도 혼자였던 생뚱쭈삐리. 무한허공에서 죽음을 겪어내고 다시 한번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생뚱쭈삐리... 반 세기 전의 어느 진지한 삶의 대화. 지금 여기, 고독 안에 혼자 쓰러져도 홀연히 일어나 세상과 그 안의 우월한 삶을 힘차게 껴안을 줄 아는 한 사람의 따스하고 소박한 울림이 있다.

- 율킨이의 글에서

생뚱쭈삐리의 집은날의 편지

초대받은 벗에게

● 이화숙 옮김

藝河 서울·강남구역삼동 736-37
전화 553-5934~6

축방법으로 주민들과 함께 값싼 비용으로 집을 지은 경험담을 담았다. 현대 건축의 모더니즘, 획일화, 관습 등을 극복한 한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흙건축이라는 제3세계 건축의 유형을 되살리기 위해 관료주의와 투쟁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묘사되고 있다.

◇ 피카소의 성공과 실패 (존 버거, 김윤순, 미진사)

저자는 미국의 마르크시스트 계열의 비평가. 20세기의 대표적인 현대화가인 피카소의 예술세계와 개인사를 독특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피카소가 예술가로서 슈퍼스타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왜,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파탄을 맞게 되었는지를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와 미술과의 관계 속에서 추적해보고 있다.

〈인하대 미술교육과 成完慶 교수 추천〉

◇ 자유인을 위한 책읽기 (모티머 애들러, 최영호, 청하)

책읽기 입문서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책. 책의 질을 구분하는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오픈 뮤지엄 프로그램 (백승길, 정음사)

오늘의 삶에 살아있는 박물관 개념을 이해시키는 책. 누구나 직접 박물관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실례를 제공한다.

◇ 오늘의 선정도서 총목록 519권 (편집부, 한길사)

최근 5년간 우리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높은 수준의 책들을 해제와 함께 소개한다. 직접 읽기보다는 우리의 책이 어떤 수준에도 달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책.

〈서울신문 李重漢 논설위원 추천〉

◇ 프로이드식 치료를 받는 여교사 (장정일·이성복 외, 열음사)

80년대를 대표하는 네명의 젊은 시인의 시선집. 종래의 시적 발상과 기존의 가치체계에 도전하여 '전진을 위한 길트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①외적 비판과 내적 성찰을 통한 고백체 ②새로운 감성과 현실의식 ③과감한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독특한 스타일의 앤솔로지이다.

◇ 어느 망명작가의 참인생 (나보코프, 권택영, 청하)

추리소설 형식을 빌어 어느 망명작가의 과거를 파헤침으로써 인생과 예술의 상호연관 문제를 탐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책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삶이 곧 하나의 글쓰기이며 책읽기라는 것을 저자와 독자가 함께 참여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 영문과 金聖坤 교수 추천〉

◇ 閔妃殺害 (角田房子, 金恩淑, 조선일보사)

일본인치고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민비라는 인물과 韓末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 한·중·일 세나라의 얽힘을 일본 우위의 입장이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노력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으며, 3년에 걸친 자료조사도 충실한 편이다. 특히 민비라는 인물의 성격부각에도 성공하여 역사에 대한 교양 뿐만 아니라 소설이 갖는 재미도 얻을 수 있다.

〈고려대 국문과 徐淵昊 교수 추천〉

◇ 인간학으로서의 수학 (김용운, 우성문화사)

어렵고 전문적이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수학을 다른 예술이나 학문분야와 관련지어서 매우 재미있게 풀이한 책. 문화라는 것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李箱의 시가 어떻게 수학과 연결되는지, 수학과 동서의 우주관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해 준다.

〈한양대 음대 權五聖 교수 추천〉

◇ 분석과 해석 (김현, 문학과지성사)

문학작품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뛰어난 문학평론집. 문학작품을 읽는 방법이 독특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중오와 폭력」 「폭력과 왜곡」은 우리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글이다.

◇ 비명을 찾아서 (복거일, 문학과지성사)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소설. '대체역사'라는 특이한 방법으로 오늘의 현실을 투시하고 있다.

〈이화여대 불문과 金治洙 교수 추천〉

◇ 한국인의 국과 무당 (황루시, 문음사)

우리의 무속현장 보고서로는 가장 리얼하게 잘 돼 있는 책. 전국의 다양한 국현장을 거의 카바하고 있다. 애정을 가지고 편견없이 우리 문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

◇ 복치는 사람들 (라이너 쾰니크, 박태영, 고려원)

상징적인 성인동화. 침체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오늘의 한국상황과 관련해서 우화적으로 읽을 수 있다.

〈연세대 교육학과 金仁會 교수 추천〉

◇ 南部軍 (李泰, 두레)

조국과 역사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골짜기에 뼈를 뿌리고 등성이에서 혼을 날려보낸 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기록이 있다면, 비록 그 애정의 방향과 방법이 우리와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 읽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 조국과 역사가 당분간 좀더 그들의 삶과 그리고 죽음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면, 대단히 주제넘은 말이지만 우리가 대신해서 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경제평론가 鄭雲暎씨 추천〉

◇ 걱정시대 (김학철, 풀빛)

현재 연변에 살고 있는 동포작가의 장편소설. 일제시대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하는 주인공의 삶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무대가 만주까지 확장되어 만주이민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대하소설이므로 소설적 호흡의 흐름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서울대 국문과 權寧珉 교수 추천〉

◇ 「미디어는 맛사지다」 (마살 맥루한, 김진홍, 열화당)

책제목은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는 의미이다. 캐나다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문학비평가, 작가인 맥루한(1911~1981)은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대해 이해하려면, 환경으로서의 미디어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없이 불가능하다"는 참신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출판인 李環薰씨 추천〉

“한그루의 묘목을 정성껏 가꾸듯
전문편집인력을 성심껏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최초의편집인력양성학원

관 서울편집디자인학원

672-1841, 672-1842

전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하차문래동방향 150m